



서론

우리는 대일돈육수출을 시작한 이래 설파메타진 잔류가 문제되어 '88년 11월부터 수출돈육이 반송 또는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난해에는 자몽사건, 우지파동 등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89년 6월에 육류 잔류물질 27종에 대한 허용기준과 보사부에서는 '89년 12월에 40종에 대한 허용기준을 발표하여 올 12월부터 실시한다고 한다(표 1).

이와 같이 육류허용기준이 현실화되는 문제에 생산자가 대비하지 못하면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유통육류에 대한 잔류물질을 문제화하고 일간지에 기사화되면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폭락하여 축산업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과거에는 식품(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은 질보다 양을 추구했으

표 1. 축산물 항생물질잔류허용기준

(단위 : ppm)

구분	약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항	네오마이신	0.25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보비오신	1.0 이하	해당없음	1.0 이하
	모넨신	0.05이하	해당없음	0.05이하
	바시트라신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생	바지니아마이신	해당없음	0.1 이하	0.1 이하
	살리노마이신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스트렙토마이신	해당없음	불검출	불검출
제	스피라마이신	0.025이하	0.025이하	0.025이하
	암피실린	0.01이하	0.01이하	해당없음
	에리스로마이신	0.01이하	0.01이하	해당없음
	옥스테트라사이클린	0.1 이하	0.1 이하	1.0 이하
	올레안도마이신	해당없음	0.15이하	0.15이하
제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티로신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페니실린	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하이그로마이신B	해당없음	불검출	불검출

강 대 진

동방유광(주) 대표사로 기술개발부 대리



	나이카바진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이하
	니트로빈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테코퀴네이트	2.0 이하	해당없음	2.0 이하
합	설파디메톡신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설파메타진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성	설파모노메톡신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설파퀴녹실린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암푸롤리움	0.5 이하	해당없음	0.5 이하
항	에토파메이트	해당없음	해당없음	0.5 이하
	올라퀸독스	0.05이하	0.05이하	해당없음
균	옥소린산	0.05이하	0.05이하	해당없음
	오르메도프림	해당없음	해당없음	0.1 이하
제	조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이하
	치암페니콜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카바독스	해당없음	불 검 출	해당없음
성	클로피돌	0.2 이하	0.2 이하	5 이하
	푸라졸리돈	해당없음	불 검 출	해당없음
장	디에칠스틸베스트롤	불 검 출	불 검 출	불 검 출
	에스트라디올벤조에이트	0.00012	해당없음	불 검 출
호	제라놀	0.002이하	해당없음	불 검 출
	트랜볼론아세테이트	0.0014 이하	해당없음	불 검 출
문	프로게스테론	0.003이하	해당없음	불 검 출

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제는 소비자의 입맛이 점점 고급화되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점차 눈을 뜨기

시작했다.

식품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규제가 올 1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육계사육농가의 경우 아직도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양계인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론

양계산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상황에서 그 품질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양가치가 높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로서 가장 문제가 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동물약품이다.

동물약품은 오늘의 축산업을 집단화, 기업화하는데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동물약품의 축산물에서 안전성을 제기하게 된 것은 매우 오래전 일이다. 1950년대부터 항생물질을 저농도로 사료에 첨가 급여하면서 가축의 성장이 촉진되고 질병예방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어 많은 약제들이 개발·보급되었고 이들에 의한 인체 보건상의 유해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유해성은 항생물질을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균

의 생성과 내성전달로 인체에서의 질병치료효과의 저하와 특이체질 사람에서 과민반응(쇼크), 생리기능이상에 의한 암유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성은 각종 동물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거나 실험실에서 실험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사람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당연히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는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산란용사료에는 비흡수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못쓰게 하고, 시장출하시 항생제 잔류가 우려되는 사료품목(육계후기Ⅱ, 비육돈후기, 착유우유등)에는 절대 항생제를 쓰지 못하게 규제해 왔었다.

그러나 자본이 취약한 우리의 양축가들은 오염된 농장을 청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어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여 시장출하를 해도 심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사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양전문가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실제로 육계의 경우 최근 3년간 육계사료생산통계를 보면 출하1주일전부터 출하시까지 급여하게 되어있는 항생제 무투약 육계후기Ⅱ사료의 점유율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정상급여시 점유율 10%이상).

표 2. 연도별 총육계사료생산대비 육계후기Ⅱ사료

(단위 : M/T, %)

연 도	총육계사료(A)	육계후기Ⅱ(B)	육계후기Ⅱ점유율
1987	869,141	923	0.11
1988	896,321	430	0.05
1989	942,415	2,231	0.24

이는 워낙 육계사양가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말해주는 것이겠으나 우리나라 축산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도하지 못한 것이 더 크

다는 것을 우리 사료업계 종사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닭고기에 동물약품이 잔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뿐이다. 동물약품은 영양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몸밖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약품을 투약하고 나면 그 약제 성분이 모두 배출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출하를 금해야 한다.

이 기간을 휴약기간이라고 하며 약의 성분, 형태, 사용량 등에 따라 각기 다르나 대개는 5~7일 정도다. 따라서 육계사육농가는 출하 7일전부터 출하시까지는 육계후기Ⅱ사료를 급여하여 항생제 잔류를 방지해야겠다. 그러나 휴약기간만 잘 지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항생제 무첨가 사료인 육계후기Ⅱ사료를 급여해도 사료통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나 사료공장에서 제조과정중에 전이오염이 될 경우 잔류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사료공장자체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문제는 육계사육농가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계열화 생산체제에 의한 생산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계열농장에서는 필히 품질관리 측면에서 육계휴약사료 급여를 권장해야 한다.

결론

지난 한해는 잔류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고 그 안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매우 컸다. 물론 그 대상은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우려였지만 이러한 규제는 국내 축산물에도 올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육계사육농가는 국민보건의 향상은 물론 육계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확대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양계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한기